

‘꿈틀대는 수출’ 내년초 회복 기대...“물건은 많이 팔려”

반도체·선박 등 韓강점 제조업황 내년 개선 여지 바이오헬스·화장품 등 ‘셋별’ 수출품목도 견고



만 1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수출이 내년초 반도체와 선박 업황 개선 흐름을 타고 회복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수출 ‘물량’ 자체는 작년보다 늘어난 데다가, 우리

나라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 감소폭이 개선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1월 수출을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한 441억달러, 수입을 13.0% 감소한 407억3000만달러로 집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올 10월을 저점으로 수출 감소세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7%를 나타낸 이래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2월부터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감소율로

한풀 꺾인 뒤, 내년 1월에는 0%대 증가율로 회복되고, 2~3월에는 수출이 고꾸라지기 직전인 작년 11월(3.6% 증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우선 올해 단가 하락 등으로 부진을 겪었던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수급이 개선되고, 장기간 구조조정을 거친 선박과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내년 1분기 인도선이 증가할 전망이며, 자동차는 친환경차·SUV 신차 출시 영향으로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미국은 지난 10월 15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한 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진행 중이다.

통계 분석상 기저효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올초에 수출 감소가 본격화됐기에 내년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내년 수출 회복의 기대감을 높인다. 올 1~11월 누적 수출 물량은 전체 품목에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20개 품목 중 13개에서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11월만 놓고 보면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자동차 등 14개 품목에서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 올해 가장 많은 품목에서 물량 증가가 기록됐다.

특히 반도체 수출 물량이 22.2% 크게 늘었으며 △바이오헬스 50.9% △석유화학 1.8% △석유제

품 2.3% △자동차 0.9% △가전 2.5% △철강 5.9% △로봇 19.1% △화학품 6.1% 등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D램 가격이 회복되면 물량 증가에 따른 효과가 수출액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의 IT 수요 비수기가 끝나는 대로 좋은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율이 지난 4월(-4.6%) 이후 가장 낮은 수준(-12.2%)으로 개선된 것도 고무적이다.

중국에서 광군제에 따른 가전 소비가 늘어나고 환경 정책 변화에 따라 철강 수요가 증가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난 여파로 해석된다.

뉴스1

뉴트로 열풍에 식품업계 ‘공식’ 바꿨다



패션업계에 이어 식품업계에 뉴트로(New+Retro) 열풍이 거세다. 과거 단종됐던 제품이나 브랜드를 재출시해 재미를 보고 있다. ‘추억의 맛’을 즐기려는 어른들과 ‘옛 것’이 궁금한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과거 어느 정도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낮다.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하기 힘든 신제품과는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10월 ‘맥치킨’을 재출시했다. 맥치킨은 빵과 고기 패티, 양상추, 소스 등 단순한 조합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단종됐고 소비자들은 2년 가까이 즐기게 재출시할 요구했다. 재출시된 맥치킨은 치킨 패티가 과거보다 약 50% 더 두툼해졌다.

뉴트로 열풍에 식품업계 ‘공식’ 바꿨다

롯데리아 역시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버거’를 내놨다. 오징어버거는 2004년 출시돼 인기를 끌다 2016년 단종됐다. 재출시 이후 두 달 만에 약 420만개가 판매되며 식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롯데리아는 오징어버거의 인기로 합입어 투표 2위를 차지한 ‘라이스버거’도 다시 판매하고 있다. 2016년 단종됐던 라이스버거는 재출시 일주일만에 55만개가 팔리며 오징어버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KFC에서는 지난달 치킨에 피자 토핑을 얹은 ‘치짜’를 재출시했다.

제과업체들도 재출시 열풍에 가세했다. ‘태양의 맛 썬’, ‘치킨팝’을 재출시하며 큰 성공을 맞은 오리온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아기과자’로 유명한 ‘베베’를 ‘베베’로 다시 선보였다. 롯데제과에서는 ‘꼬깔콘 달콤한 맛’에 이어 최근 ‘뜨끈 치즈케이크’를 다시 선보였다. 오리온은 치킨팝을 재출시 7개월 만에 2000만봉이 팔렸다.

라면의 경우 농심이 30년 만에 ‘해피라면’을 부활시켰다. 해피

라면은 1982년 출시된 제품으로 당시 소비자 가격이 100원었던 것을 감안해 현재 판매 가격을 700원으로 책정했다.

재출시된 제품들이 연이어 ‘대박’을 터트리자 너도나도 과거 자료집을 뒤지고 있다. 다시 내놔도 통할만한 제품을 찾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뉴트로 트렌드가 재출시 열풍을 이끌고 있는 주요 인이라 입을 모아 말한다. 기성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1020 세대에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뉴트로’는 이미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재출시 제품은 여기에 딱 부합한 것이다.

이미 소비자 수요가 검증된 제품으로 실패 확률을 줄이려는 속내도 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 반응을 미리 확인할 수 없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출시 제품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제품 정보를 미리 노출할 수 있어 SNS 입소문이 중요한 마케팅에도 좋다”면서 “최근 수의 창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재출시도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뉴스1

다가오는 연말정산, 황금비율 아시나요?

#직장인 김승기씨(35세·가명)는 그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렵게 알아내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고수로 알려진 세무사 이지원씨(35세·가명)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5번째 금융칼럼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발표했다.

금융원은 신용·체크카드의 알뜰 사용법으로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사전 점검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활용 △거래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 확인 △맞벌이 부부의 카드 몰아주기 등을 안내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

다가오는 연말정산, 황금비율 아시나요?

액)를 초과해야 한다.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이에 소비자는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 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을 초과했을 경우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뉴스1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8	2,535,268,68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6	51,217,55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388	1,415,56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4,71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85,924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유인인 경우 익명당첨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